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탬파베이 버캐니어스 유니폼으로 은퇴한 탐 브래디. 지난해 같은 2월 1일 은퇴를 선언했다 반복해 다시 1년을 선수생활을 한 후 또 다시 은퇴를 선언했다

뉴잉글랜드 풋볼왕국 이끌었던 GOAT 탐 브래디 은퇴

NFL 쿼터백의 대부분의 기록 보유한 최고의 쿼터백
199번째로 드래프트 돼 NFL 최고의 쿼터백으로
선수생활 위해 이혼까지 결행, 1년만에 다시 은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유
일무이하게 “GOAT(The Greatest Of All
Time)” 라 불리던 탐과 베이 버캐니어스 쿼터

백 탐 브래디(45)를 더 이상 경기장에서는 볼
수 없게 된다.
탐과 이전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 쿼터백

으로 21년을 보냈던 탐 브래디는 1일 트위터
에 51초짜리 비디오를 올려 자신의 은퇴를 선
언했다. 지난해 2월 1일 은퇴를 선언했던 이래
정확히 1년 만이다. 23년간의 선수 생활의 마
지막 선언을 그는 해가 떠오르는 플로리다 해
변에서 촬영했다.

브래디는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인 이
번 비디오에서 지난해 은 ▶▶8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서 얼마 벌어야 상위 1% 되나?

매사추세츠 상위1% 진입소득 미국내 두번째로 높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서 상위 1%의 소득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당 약 \$900,000을 벌어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상위 1%의 소
득 기준은 미국내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미 국세청과 샌서스국의 자료를 취합해 스
마트에셋(SmartAsset)이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매사추세츠에서 소득이 1% 안에 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89,900을 벌어야 했다. 이
들은 주내 소득세의 38%를 차지했다. 또한
상위 5%에 드는 소득자들은 최소한 \$349,700
을 벌었다.

미국내 15개 주의 1% 상위소득자들에 포
합되기 위해서는 \$616,000에서 \$955,000의 소
득을 올려야 했다.

상위 1%의 소득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커
네티컷으로 약 \$955,000의 소득을 올려야만
했다. 2위 매사추세츠에 이 ▶▶4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몬트레이 파크 총기참사 피해자, 차이나타운서 추모 집회

차이나타운서, 해프문, 덕스베리 피해자 추모도 최근 경찰 폭행사망 멤피스 타이어 니콜스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중국계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한 60개 단체가 연합으로 몬트레이 파크, 해프문, 덕스베리 총격사건 피해자 그리고 멤피스에서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 등을 위로하는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모식에서 사회를 맡은 시

민협회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 부회장은 “우리는 언제나 기억되는 침묵이다. 우리는 끝나지 않는 노래다” 라는 존 키니의 시를 낭송하며 행사를 시작했다. 발렌틴 서머빌 시장은 “더 이상은 안된다” 며 폭력에 피해를 입은 모든 커뮤니티의 각 개인들은 힘을 모아 증오와 폭력을 종식하고 안전

하고 환영받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들섹스 지검 매리언 라이언 지검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관심에 기대어 사는 삶을 계속할 수 없다. 우리를 슬퍼하지만 이 아픔을 행동으로 이끌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수백명이 참여했으며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해 폭력을 규탄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5월 11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예정

바이든, 공화당 '즉각 중단' 결의안에 반대하며 일정 제시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된다.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성명을 통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 AP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1일 종료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급작스러운 비상사태의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시 중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을 재연장했다. 복지부는 당시 비상사태를 종

료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병원 등에 사전 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됐으며 이후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oleco@yna.co.kr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세대, 우수한 한글실력으로 '나는 번역시인' 대회 개최

중급과정 안유찬, 고급과정 송연, 김예린 학생 대상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개교 48주년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양원미)는 1월 21일 '제 3회 나는 번역시인' 대회를 개최해 우수 작품을 제출한 50여명의 학생들을 시상했다.

이 행사는 한국학교에서 6-7년 이상을 공부한 중급 및 고급과정 학급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수상 학생들은 정현중, 박두순, 윤동주 시인을 비롯하여 여러 주옥과도 같은 시를 한글 및 영어로 번역한 후 시의 내용에 따라 배경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낭송하는 행사이다.

특히, 고급과정의 경우 본인이 번역한 시의 감상문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여 2세들의 뛰어난 한글 이해도를 엿볼 수 있었는데 행사에 참석한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우수한 한글실력과 맑고 밝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감동의 순간이었다" 고 입을 모았다.

중급과정 김소희, 고급과정 류민희 리더교사는 심사평을 통해 "출품된 한편 한편 모두 학생들의 노력과 정성이 듬뿍 느껴졌고 어른에게

도 쉽지 않은 한글 시의 이해를 어린 학생들이 맑고 밝은 마음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2세들의 우수함을 느낄 수 있었고 2세들이 선생님과 부모님께 '기쁨과 고마움을 선물로 받은 기분' 으로 정말 깊은 감동의 순간이었다" 라고 말했다.

남일 교장도 "대면수업 복귀 첫 학기를 잘 마치며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기초과정부터 고급 및 세종과정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2세들의 뛰어난 한글 실력으로 여러 시를 번역하고 낭송하면서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참기쁘다." 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올해 3회 대회에서는 중급3과정 한국반 안유찬 학생이 윤동주 시인의 '호수머니' 로 중급과정 대상을 받았고 김은한 전 이사장이 시상했다. 고급 과정에서는 2명이 공동대상을 수상했다. 고급2과정 한라반 송연 학생이 '상처 (박두순 시인)' 로 공동대상을 받았으며 보스톤코리아장명술 대표가 후원단체장으로 상을

시상했다. 고급3과정 백두반 김예린 학생은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정현중 시인)' '으로 공동대상을 받아 남일 교장이 시상했다. 이번 대회의 부문별 수상자 명단과 발표 시 제목 등은 아래 수상자 명단과 발표 동영상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날 대회에서 가장 많이 한글로 번역된 영어시는 매사추세츠 에머스트 출신의 천재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였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유아반부터 기초, 초급, 중급, 고급과정 및 이중언어과정 및 성인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월 18일에 개학식을 갖고 봄학기를 시작한다. 지역 최대 규모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는 2세들의 한글교육은 물론 문화와 한국역사 교육 및 음악과 미술 교육 부문을 맡아 지도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교사 지원 및 봄학기 등록문의는 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와 남일 교장 (508) 523-5389/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 또는 카톡 (ID: ksneusa)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번역시인대회 수상자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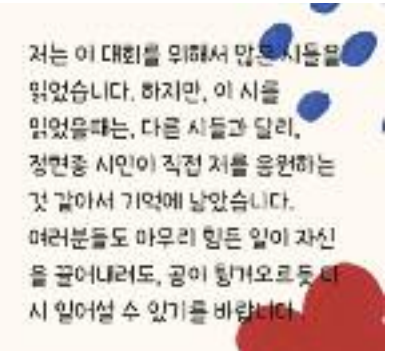
고급과정 대상-송연-박두순 시인



중급과정 대상-안유찬-윤동주 시인



고급과정 대상-김예린-정현중 시인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매사추세츠 영유아 보육원 비용 미국내 가장 비싸

미들섹스와 노퍽카운티 미국내 세번째로 비싼 카운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동부지역 차일드케어 비용은 미국내 최고 수준이며, 주내 2개 카운티의 차일드케어 비용은 미국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들섹스카운티와 노퍽카운티의 부모들은 연 \$26,000이상을 영유아 차일드케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각 가정 전체 예산지출의 20%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미국내에서 버지니아주의 알링턴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두 곳만 보스톤의 두 카운티보다 더 많은 영유아 보육원 비용을 지불했다.

미들섹스와 노퍽카운티 외에도 서퍽과 에섹스 카운티 차일드케어 비용은 상위 20위권 안에 들었다. 이외에도 매사추세츠 주내 14개 카운티는 미국내 2,800여 카운티 중 상위 100 위권 안에 포함됐다.

모리 힐리 주지사는 취임사에서 매사추세츠의 차일드케어 상태가 위기라고 진단하고 미국내에서 가

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차일드케어 비용의 폭등은 점차 이를 제공하는 시설의 축소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 차일드케어 인력들은 보수가 극히 낮은 관계로 인력을 보충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내 전체적으로 차일드케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주된 이유다.

이처럼 차일드케어 비용이 비싼 곳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제공되더라도 여성들이 근무를 피하는 바람에 여성 인력이 적은 편이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전역의 가족들은 부담스러운 차일드케어 비용에 직면해 있다. 지난 몇 년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출근해야 하는 부모들이 차일드케어 비용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번 노동부의 보고서는 각 주가 제출한 시장가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으며 나온 수치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hsb@bsotonkorea.com



매사추세츠서 얼마 벌어야 상위 1% 되나?

▶▶1면에 이어서

어 뉴저지 (\$826.0K), 뉴욕 (\$817.8K) 캘리포니아 (\$805.5K) 순이라고 스마트에셋은 밝혔다.

상위 1% 진입 가장 소득이 낮은 주는 웨스트버지니아로 \$374,712였고 미시시피 (\$383,128), 뉴멕시코 (\$418,970), 알칸사스 (\$446,276), 캔터키 (\$447,300) 순이었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거주 가구의 중간소득은 약 \$89,000이었다. 미국 전체 가구의 중간소득은 \$70,000이 되지 않는다.

유매스 아시아어메리칸연구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내 한인들

의 중간소득은 \$92,831로 전체 중간소득보다 높았다.

매사추세츠 인도계의 중위소득은 \$131,826으로 단연 높았으며 한인들의 중위소득은 \$92,831로 두 번째였다. 중국계는 \$84,277으로 중간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캄보디아계 (\$75,932)와 베트남계 (\$73,488)가 이었다.

한편, 지난 2020년 기준으로 1백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매사추세츠 가구는 22,840였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4%의 백만장자 세금은 1백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부과되며 2024년 약 10억달러의 세금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이 세금은 교육과 대중교통 향상에 쓰이게 된다.

현재 의회는 백만장자세 부과 범위와 향후 안정적인 펀드 운영을 위한 트러스트 설립 등의 시행 방법을 고려 중에 있다.

한편 윌리엄 갤빈 주무장관 등은 이번 백만장자세의 적용 범위에서 주택이나 사업체를 팔아 단 1년만 백만달러의 소득을 넘긴 특정 납세자와 스톱비지니스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 중이며 힐리 주지사는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J2K (주)제이투케이엔터테인먼트 협력업체

집 관리, 내집처럼 해드립니다

프리미어워크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 한준희 팀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맡겨주시면 모든 주택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내집처럼 맡아서 해드립니다”

프리미어 부동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Property management service) 부분 매니저인 한준희 씨는 자신의 일을 “집주인(Landlord)을 대신해서 집을 토크로 관리해주는 서비스” 라고 말한다.

집을 맡게 되면 일단 세입자(tenant)를 찾아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세입자의 각종 요구를 해결하고 렌트비 등도 관리한다. 이외에도 집 또는 아파트 유닛의 밸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실내외 시설들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한국이나 미국내 다른 지역에서 보스톤에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유용한 서비스이다.

한준희 매니저에 따르면 “프리미어 부동산을 통해 보스톤 인근에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 대부분은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이용하신다” 고 말한다. 프리미어 워크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에서는 현재 약 50개의 주택 및 아파트먼트를 관리하고 있다.

한준희 매니저는 “세입자들의 요구를 주 7일 하루 24시간 모두 전화를 받고 응대하며 24시간 안에 핸드맨을 보내서 문제 요점을 파악하고 해결한다.” 고 말했다.

최근에는 한 테넌트가 새벽 4시에 전화해 ‘병원에 다녀왔는데 화장실이 막혔다’ 는 문제를 알려와 이를 처리한 경우도 있다고 한 매니저는 밝혔다.

보스톤의 경우 입주자들의 비상 수리요청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여름철과 겨울철이다. 7월 초는 에어컨 등 냉방과 관련된 요청이며 겨울철에는 난방과 관련된 요청이다. 한팀장에 따르면 지난 7월에는 6개 유닛의 에어컨 관련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했으며 지난 12월에는 4개의 난방장치를 교체했다.

일반적으로 수리요청이 들어오면 각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집주인에게 이를 알린다. 프리미어워크스는 자체적으로 시공팀을 보유하고 있기에 빠르게 응대할 수 있으며 최소 2개 이상의 견적을 집주인에게 제시하고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보험 청구도 집주인을 대신해서 하며 관련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프리미어부동산 올스텝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나중혁 프리미어워크스 프로젝트 매니저(사진 오른쪽), 한준희 렌탈팀장

한 매니저는 “워터탱크가 터져서 집에 손상을 입은 건에 대해 보험처리를 신청하고 이를 해결했다. 비록 보험료는 일부 올라가겠지만 크게 올라가지 않으니 보험처리로 문제를 하는 게 집 소유들에게는 좋다” 고 말한다.

입주자들의 민원을 제때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한준희 씨는 “중요한 것은 입주자들이 없어 공실이 안되게 하는 것이다. 1년에 2개월만 비어있으면 그 유닛 또는 집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다 사라지게 된다” 고 말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입주자 민원 처리다.

한 매니저는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집처럼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따른다” 고 강조했다.

프리미어워크스 프로퍼티매니지먼트의

비용도 저렴하다. 현재는 유닛 사이즈에 관계없이 유닛 당 \$90을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렌트비의 5-10% 부과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회사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한준희 매니저는 향후 관리 유닛을 200-300개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매사추세츠주는 법과 규정이 입주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항상 집 소유자가 불리하다. 따라서 이를 잘 이해하고 입주자들이 내어야 할 부분, 그리고 집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분리해서 청구서를 보내기 때문에 집 소유주 입장에서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리미어워크스 프로퍼티매니지먼트를 이용하길 원하는 경우 한준희 매니저(617-586-9192)에게 연락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업체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스몰비즈니스 은퇴계좌 401(k) 제공시 세금크레딧 받는다

지난해 말 시큐어 2.0 법안, 소상공인 은퇴계좌 지원 사업주 및 직원 401K 패키지 큰 변화, 세금크레딧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시큐어 2.0 법안(The SECURE 2.0 Act)이 통과되면서 개인들은 물론 스몰비즈니스 소유주들도 401(k) 세금크레딧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말 정부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시큐어 2.0 법안(The SECURE 2.0 Act)은 소규모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은퇴계좌를 제공할 경우 사업주 매칭 부담금과 401(k) 운영 비용을 세금크레딧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스몰비

지니스들에게 은퇴계좌 혜택 제공을 용이하도록 만들어 인재들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퇴투자회사인 마시 맥레난에이전시의 크레이그 레이드 회장은 “시큐어 2.0은 스몰비즈니스사업들에게 가입제인저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은퇴 계획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가장 눈여겨 보는 것 중의 하나다. 스몰비즈니스들은 대규모 회사들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였다” 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장점은 스몰비즈니스가 자체적인 401(k) 계획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50명 이하 직원을 보유한 사업체들의 경우 최대 401(k)관련 행정비용을 최대 \$5,000까지 100%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 이에 더해 직원들을 대신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적립금액을 최대 \$1,000까지 크레딧을 받게 된다. 이 같은 혜택은 51-1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한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점차 줄어들며, 세금크레딧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게 된다.

시큐어 2.0은 현재 현재 심플 IRA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이 이를 401(k) 은퇴계좌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레이드씨는 말했

다.

레이드씨는 “만약 사업체들이 401(k)를 제공할 계획이라면 지금이 바로 적기” 라고 말했다.

그러나 401(k) 크레딧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사업주 부담 적립금은 2년간 100% 크레딧으로 주어지지만 3년째에는 50%로 그리고 5년째에는 25%로 점차 줄어든다.

웰스어드바이저리커미티의 닉 스트레인 웰스어드바이저는 시큐어 법안은 92개 다른 조항이 있다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스타트업 401(k) 크레딧과 더불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들은 은퇴계획에 기금을 적립하는 직원들에게 작은 재정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일례로 새롭게 은퇴계좌에 등록하는 직원들에게는 기프트 카드를 선사할 수 있다.

-2024년부터 은퇴계좌 내에 비상 세이빙 계좌를 만들어 최대 \$2500까지 적립할 수 있다. 1년 당 최대 1천불까지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이 지출은 다시 추후에 적립할 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들은 과거 입사 3년 후부터 가능했던 은퇴계좌 가입을 2년 후부터 연당 50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401(k)를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직원의 총 보상금액의 3% 이상 15%이하의 금액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근로자 10명 이하이고 설립 3년 이하인 업체는 이 의무가 면제 된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은퇴저축의 큰 변화, 시큐어법 2.0을 아십니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의 은퇴계좌의 틀을 바꾸는 법안 시큐어 2.0 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됐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체들도 시큐어 2.0 법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개인의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큐어 2.0은 크리스마스 직전인 23일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법안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추후 자신의 은퇴생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한다.

시큐어 2.0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
시큐어 2.0 법안은 강력한 은퇴생활 보장 법안 2.0의 준말이다. 은퇴저축의 저변을 확대하고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019년말 시큐어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최종적인 법안이 도출되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가 보조하는 은퇴계좌(401K)의 의무적인 자동 가입 시행
50세 이상의 '따라잡기' 연저축 금액의 확대

로스 IRA 매칭
의무적인 최소인출 시작 연령 늦추기

파트타임 근로자도 401K 가입 조건 확대

고용주의 학자금 대출 매칭 허용
회사가 보조하는 은퇴계좌(401K)의 의무적인 자동 가입 시행

401(k)의 자동의무가입 조항은 과거에 은퇴저축을 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참여도를 1%에서 75%로 대폭 확대시켰다. 특히 가입을 하지 않은 그룹은 저소득 근로자, 젊은이들, 그리고 소수민족 미국인들이었다.

2024년부터 시작되는 401(k)의 자동가입 의무화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론 의무화이기 보다는 하나의 이니셔티브다.

연 적립 금액의 확대
현재 50세 이상의 경우 401(k)에 \$7,500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IRA에는 \$1,000을 더 적립할 수 있다. 106조항에 따르면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

과 연동해 조정할 수 있다. 109조항에 따르면 만약 62세부터 64세인 경우 최대 \$10,000까지 적립할 수 있다.

로스 IRA 매칭
직장인들은 회사의 은퇴자금 매칭 부분을 로스(Roth) 401(k) 등으로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칭 부분은 모두 세금 부과 이전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로스 은퇴계좌로의 매칭은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 지급된다. 따라서 추후 이에 대한 세금부담은 없어진다. 이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미니멈 의무 인출 연령 늦춰
은퇴계좌 소유자들은 72세가 되는 해에 의무적으로 은퇴금액을 인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73로 늦췄다. 향후 좀더 늦추게 된다.

학자금 대출 매칭
학자금 대출은 개인의 은퇴저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들은 401(k) plan, 403(b) plan, or SIMPLE IRA 등 자신의 은퇴저축에 회사가 부담하는 매칭 금액을 자신의 학자금대출 상환금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뜻한 1월가고 2월초 북극한파

이번 주말에는 화씨 0 이하의 강추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월 첫날부터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시작돼 금요일인 2월 3일에는 북극 한파에 들이닥칠 예정이다.

보스톤글로벌에 기고하는 기상학자 데이비드 엠스틴에 따르면 금요일은 해뜰 무렵이 가장 온도가 높을 시점이며 낮시간 동안 계속 기온이 떨어진다. 해질 무렵에는 10도 내외가 되며 자정 무렵에는 화씨 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2023년 계묘년의 1월은 1872년 이래 다섯번째 따뜻한 달이었다. 이번 금, 토 양일의 추위는 1월의 따뜻함을 무색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거세게 불어 체감온도는 화씨 -20에서 -35에 달해 기상청은 체감온도 경보를 내렸다.

토요일에는 가능하면 바깥 출입을 삼가고 실내에서 머무는 것

이 좋다는 조언이다. 스키장의 경우 한파로 폐쇄하거나 낮은 지역의 스키만 가능하게 제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토요일 하루에 추위가 집중되며 4일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 예보다.

이번 추위로 수도관의 동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은 단열제로 감싸주고 실내의 온도를 최소한 화씨 55도 이상으로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도관이 집으로 들어오는 곳에서 가장 먼 곳의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방울이 떨어지게 해둘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이번 한파로 인해 동식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가 있다면 이를 감싸주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

hsb@bostonkorea.com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권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뉴잉글랜드 풋볼왕국 이끌었던 GOAT 탐 브래디 은퇴

▶▶1면에 이어서

퇴선언 후 40일만에 이를 반복했던 것과 달리 “완전히”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은퇴선언은 이미 2일 전에 언론에 노출되었으며 장문의 편지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한번도 거론하지 않아 보스턴 팬들로부터 빈축을 샀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식이다.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그는 “짧게 말하겠다. 지난번처럼 길고 감정적인 에세이는 없다. 이미 지난해에 다 써버렸다.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 나를 지지했던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 내 가족, 친구, 팀 동료, 경쟁자들 모두 말이다. 너무 많아서 모두다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나의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고맙다. 하나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모두 사랑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은퇴선언에서 왜 은퇴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프로 풋볼계에서는 대부분이 그의 은퇴를 예상하지 못했었다는 평이다. 45세이지만 그는 2022년 상대적으로 괜찮았으며 2023년에는 버캐니어스, 49어스, 레이더스, 제츠 등 많은 팀이 그를 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탐 브래디의 아버지 탐 브래디 시니어는 아들이 1주일 전에 은퇴할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보스턴글로브에 밝혔다.

“(은퇴를 말해) 우리는 놀랐다. 그는 32년간 풋볼을 했다. 그의 인생 4분의 3이 풋볼 인생이다. 아름다운 커리어였다. (은퇴에) 이번엔 아주 확고했다. 사실 시간 문제였었다” 고 말했다.

탐 브래디의 2022 시즌은 순조롭지 못했고 자주 힘들어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부상과 코치 문제 등으로 버캐니어스는 오픈스 득점 25위를 기록했으며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승보다 패가 많은 시즌(8승 9패)을 보냈다. 감당하기 힘든 태클(Quarterback hit)을 많이 당하면서 그는 쿼터백에게 태클을 피하기 위해 너무 빨리 패스를 시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했다.

그의 풋볼도 힘든 한 해였지만 가정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은퇴를 반복하면서 슈퍼모델인 지젤 번천과 13년만에 이혼에 이르렀다. 그는 이 문제로 수일간을 트레이닝 캠프 훈련을 빠지기도 했었다.

지난주 은퇴를 선언한 탐과 베이의 쿼터백 코치 클라이드 크리스텐슨은 탐과 베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브래디는 지난 시즌 동안 15파운드나 살이 빠졌다고 말했다.

“가정문제로 트레이닝 캠프를 11일이나 참석하지 못했다. 정말 가슴 아팠다. 나는 지난해 탐이 했던 일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존경을 보낸다” 고 말했다.

지난달 댈러스 카우보이스에게 패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후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호스트인 짐 그레이가 향후 계획에 대해 묻자 브래디는 “이렇게 탈락할 줄 알았다면 이미 XX 포기했을 것이다. 오늘은 오늘 일만 생각한다” 고 답했다.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성기 시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경쟁

력 있는 쿼터백으로 생각함에도 그는 짐을 썼다. 그는 자신이 늘 말해왔던 45세까지 현역으로 뛰면서 21시즌 선발 쿼터백으로 출전했다. 2000년 루키 시즌은 후보였으며 2008년은 ACL 부상으로 한해를 쉬었다. 이 커리어 동안 그는 거의 모든 쿼터백의 기록을 세웠다.

그는 10번 슈퍼볼 경기에 올라갔으며 그 중 7번을 우승했다. 또 정기 시즌 최다승(251승) 기록과 포스트 시즌 최다승(35) 기록을 보유했다. 여기에 패스 시도횟수, 패스 성공수, 패스야드, 터치다운의 기록을 보유했다. 그는 3번 정규시즌 MVP를 차지했고, 5번의 슈퍼볼 MVP를 차지했다. 15번이나 프로볼 선수로 뽑혔다. 그는 2000년과 2010년 10년간 최고선수 팀의 쿼터백으로 뽑혔다. 2009년에는 올해의 복귀선수상도 받았다.

특히 그는 뛰어난 체력을 자랑했으며 지금까지 2008년 정규시즌 부상으로 15게임, 그리고 2016년 디플릿 게이트로 4게임 출장정지를 당했을 때만 경기를 빠졌다. 지난 시즌 최악의 커리어 시즌을 보냈지만 그는 여전히 최다 패스시도, 최다패스 성공 횟수를 기록했다.

그는 비단 이러한 기록으로뿐만 아니라 미프로풋볼에서 유래가 없는 20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왕국을 이끌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영화 소재의 매력을 갖고 있다.

2000년 6번째 라운드 199번째로 선택되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입단했다. 그는 그해 트레이닝 캠프에서 구단주인 로버트 크래프트에게 “나는 이 팀이 결정한 역사상 최고의 선택” 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밝혔



었다.

그말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그는 네번째 백업 쿼터백으로 시작했으나 주전인 드루 블레드소가 부상을 후 주전을 차지해 다시는 내려놓지 않았다. 2번째 시즌에는 슈퍼볼을 차지했다.

브래디는 시즌을 주전으로 출전한 후부터 4시즌 동안 무려 3번의 슈퍼볼 타이틀을 차지했다. 2007년에는 정기 시즌 전승인 16-무패를 기록했다. 이후 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번째 패트리어츠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는 마지막 시즌까지 2019년 흑독하고 철저한 관리로 나이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는 자신이 37세가 됐을 때 다른 모든 쿼터백보다 더 많은 플레이오프 승리를 기록했다. 그는 40세가 넘어서 슈퍼볼을 우승한 유일한 선수이며 그것도 2차례나 우승했다. 또한 40세 이후 112게임을 선발로 출장했다.

그는 2020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떠나 탐과 베이로 이적해 그의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 그는 이전해까지 NFL에서 최다패를 기록한 탐과 베이이 이끌고 바로 우승을 차지하며 7번째 슈퍼볼 우승반지를 끼었다. 패트리어츠 팀은 단지 6차례만 우승했다.

브래디는 향후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직도 수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팍스스포츠와 거액의 해설가 계약을 체결해 당장 다음주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슈퍼볼 경기를 해설할 수도 있다.

그는 TB12피트니스, 자신 이름의 의류브랜드 등 여러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브래디는 이번 은퇴로 자신의 어린시절 꿈이었던 49어스 선수가 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가족이 있는 플로리다에서 앞으로도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체력관리, 팀 관리, 경기 관리 등으로 그는 풋볼에서 최고의 선수였다. 그러나 그런 그도 가정 문제를 관리하는 데는 아쉬움을 남겼다.

editor@bostonkorea.com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수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1,703 명 + 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ju.go.kr>) 에서 신청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지연이자 지급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보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보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보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정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III. 신청서(해외거주자)

보상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 9천만원
- 수형인 : 구급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급 :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급)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 4,5천만원 벌금형 : 3천만원

■ 후유장애인 :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천만원~9천만원)

1~3 등급	4~8 등급	9~14 등급
9천만원	7.5천만원	5천만원

- 제외대상 :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 신청대상

- 생존 희생자 :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정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요가씨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매일 천천히 건강하게 살빠지는 습관 초보자를 위한 전신 디톡스 스트레칭



보통 새해 결심 중 하나로 살을 빼야지 생각 하면, 무작정 끼니를 굶거나 열심히 런닝머신 위에서 뛰는 등 격한 유산소 운동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방법으로 칼로리와 소모하는 건, 단기 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지속성이 약하고 무엇보다 영양 불균형과 신체적 부상을 가져오는 등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은 건강하게 체중감량에 성공하는 습관과 체질을 만들기 위해 온몸에 쌓인 독소를 빼주는 디톡스 스트레칭 기본 자세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스트레칭은 하루 중 아침 공복에 해보기를 추천하구요, 제 유튜브채널 '요가 읽어주는 여자' 에서 오분순삭요가챌린지 Day17 회 매일 천천히 살빠지는 아침 요가 루틴 편을 찾아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1. 스탠딩 사이드 스트레칭 (Standing Side Stretch) - 허리와 옆구리 슬리밍 효과, 자세 교정, 숨은 키(척추) 늘리기

1단계 선 자세에서 사진처럼 한다리를 다른 다리 뒤로 보내 무릎이나 발목을 교차해줍니다.

2단계 오른 무릎을 앞으로 보냈다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아당기며 가슴을 활짝 연 상태에서 왼쪽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3단계 최대한 두 다리는 퍼준 상태에서 앞 무릎으로 뒷무릎을 살짝 밀어주며 균형을 잡아주세요.

4단계 두 팔은 길게 사선 천정으로 뻗어주고 시선은 천정 혹은 편안한 한 곳을 바라본 상태에서 깊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TIP! 한 자세에서 가만히 홀딩하는게 힘들다면 영상에서와 같이 중앙으로 왔다가 다시 옆구리 스트레칭을 반복해주세요. 두 방향 다 해보시고 조금 더 뻗었던 쪽을 몇번 더 반복해 스트레칭 해주는 걸 추천해요!



2. 로우 런지 변형 (Low Lunge) + 사이드 밴드 (Side Bend) - 허리통증 예방, 허벅지 슬리밍 효과

1단계 테이블 자세에서 왼발을 앞으로 보내 무릎을 접어 로우 런지 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오른 무릎을 바닥에 대고 두 손을 천정으로 뻗어 첫번째 했던 자세처럼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아 당기며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3단계 들숨에 다시 중앙 제자리로 돌아오고 날숨에 옆구리 스트레칭을 반복합니다.

4단계 허벅지 앞과 옆구리의 자극을 느끼며 충분히 스트레칭한 후, 반대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TIP! 손을 왼쪽으로 보냈을 때 중심이 흔들리는 분들은 허벅지 사이를 좀더 중앙으로 조인 다음, 척추를 펴고 늘려주는데 집중해주세요.

3. 하프 스플릿 (Half Split)과 변형자세 - 햄스트링(대퇴이두근)과 종아리 스트레칭, 다리 붓기(부종) 제거

1단계 앞의 자세에서 구부렸던 왼 무릎을 천천히 펴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냅니다.

2단계 왼 무릎과 엉덩이는 같은 수직선상에 있도록 유지하고 양손 끝은 바닥에 닿니다.

3단계 발바닥을 바닥으로 대었다가 발끝을 몸통 쪽으로 끌어당겨 발목과 발등을 번갈아가며 스트레칭 해줍니다.

4단계 앞 무릎이 완전히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으니, 다리 뒷면에 느껴지는 자극에 집중합니다.

TIP!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무릎 밑에 담요



를 받치거나 매트를 반 접어 무릎을 보호해주시고, 이 자세에서 손이 바닥에 잘 닿지 않는다면 한 손을 벽에 가져가 균형을 잡아도 좋습니다.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단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이즈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검은 토끼해)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부동산 매매/임대/투자
관련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COMPASS



제11기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 (사진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제12기 OKFriends 봉사단 참가자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한인 차세대와 교류하면서 공공외교 활동에 참여할 '2023년도 OKFriends(대학생 봉사단)' 을 90여명 규모로 모집한다.

봉사단은 재단이 시행하는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등 다양한 초청사업의 진행요원으로 참여하여 차세대 재외동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단으로서 재외동포사회에 과전되어 현지 동포사회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

게 된다.

재단은 오는 2월 26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3월 11일 면접을 진행해 3월 15일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봉사단 발대식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현재 국내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내국민 학생, 재외동포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서는 2월 26일까지 이메일(okfriends@okf.or.kr)로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코리아넷 홈 → 공지사항 → 361번 '제12기 OKFriends 봉사단 모집안내'

활동 기간은 3월~12월까지 약 10개월간이며, 활동을 마친 봉사단원에게는 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김성곤 재단 이사장은 "OK-Friends 봉사단원들이 봉사활동과 공공외교활동 과정에서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 온라인 식료품 주문 \$150 이하엔 배달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아마존은 아마존 프레스의 온라인 식료품 주문액이 \$150 미만일 경우 배달비를 부과기로 했다.

2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배달비는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비용절감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새롭게 부과되는 가격은 주문액이 50달러 이하일 경우 \$9.95, 100달러 이하일 때는 \$6.95, 150달러 이하일 때는 \$3.95가 각각 부과된다.

아마존은 매년 \$139의 프라임 회원들에게는 일부 지역에서 \$35 이상의 식료품을 주문할 경우 무료로 배달했었다.

아마존은 지난 2021년 홀푸드마켓의 무료 배달을 없애고 \$9.95의 배달비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명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션원 회원사 | 세한원 회원사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파월, 인플레이션 승리 선언 일러... "두어번의 금리인상 더 필요"

인플레이션 하향 확산하려면 증거 더 있어야... 목적 달성 때까지 방향 유지
부채한도 문제엔 금융시장 영향 주시... 의회의 한도 상향이 유일 해법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고물가를 잡기 위해 당분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됐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며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인 2%를 달성하려면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개월 물가지표에서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을 언급하면서 "최근 전개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하향 곡선이라고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원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개선되는 등 상품 가격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완화)이 시작됐지만, 주택시장과 서비스업에는 아직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못박았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0.25% 포인트로 낮춘 것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연준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래 금리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고용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물가를 안정화하려면 지금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다며 "역사는 너무 일찍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현 방향

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수준으로 긴축하려면 "두어 번(couple)의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FOMC 위원들은 작년 12월 정례회의에서 올해 말에 적절한 금리 수준으로 5.00~5.25%(중간값 5.1%)를 제시했다.

연준이 이날 금리를 4.50~4.75%로 올렸으니 앞으로 0.25%포인트씩 두 번만 더 올리면 되는 수치다.

한편 FOMC는 이번 정례회의 성명에서 향후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인을 나열하면서 그동안 계속 언급했던 '공중 보건' 상황을 빼

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이제 코로나19를 경제 부담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이제는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18일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해법이 있는데 그것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해 미국 정부가 모든 채무를 제때 갚는 것"이라며 "거기서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매우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한도 문제가 긴축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1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두어번 더 인상" 에도 시장은 3월 마지막 금리인상 기대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두어 번 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 차례 추가 인상을 끝으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면서 연준과 시장이 '엇박자'를 지속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연준은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은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지난해 초 0.25%포인트였던 기준금리 상단을 4.75%로 급격히 끌어올렸지만, 이 과정에서 금리 인

상 폭을 0.75%포인트, 0.5%포인트, 0.25%포인트로 차츰 낮췄다.

파월 의장은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적절히 제약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 두어 번(couple) 더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 성명서에는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들'(increases)이 적절한 것으로 예상한다는 표현도 담겼다.

하지만 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을 예상하며 기자회견 전까지 장중 최저 수준을 맴돌던 미국 증시 분위기는 그의 회견이 진행될수록 바뀌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회견 직후 장중 최고치인 1.8%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

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했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물가 상승세 둔화의 명확한 증거가 관찰됐다는 그의 발언과 지난달 주가 상승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초점은 단기적 움직임이 아니라 (금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라고만 언급했다.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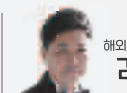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바이든 "더 존중하고 손 잡자"...부채한도 놓고 야당에 화합 촉구

조찬기도회서 "美 영혼 되찾자"...하원의장 첫 담판에선 합의불발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회가 대치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좀 더 손을 잡자"며 화합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 방문객 센터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연설에서 "우린 큰 차이가 있지만, 국가의 큰일을 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음을 지난 2년간 입증했다"며 "우린 손잡고 하나갈 수 있고 미국의 영혼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자"면서 "그것이 케빈과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담이 아니다. 우린 어제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지독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도록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회가 국가라는 대의를 중심에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맨 앞줄에 나란히 앉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한 시간여 첫 담판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이 회동을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결국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백악관도 양측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기도는 "우리가 다시 서로 만나고, 서로 다시 바라보고, 함께 다니고, 지독하게 논쟁하지만 여전히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이라며 의회의 화합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 재무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거부하자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고자 지난달 19일부터 특별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이런 임시조치로 위기를 넘기게 됐지만 오는 6월까지 부채한도 상향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의회 '틱톡금지' 공감대 확산...민주 의원, 애플에 퇴출 촉구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미국 연방 의회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인 마이클 벤넷(콜로라도) 상원의원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에게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벤넷 의원은 서한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 3분의 1이 보는 콘텐츠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미국인들의 축적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벤넷 의원은 애플과 알파벳에서 한을 보낸 이유에 대해 "지금처럼 누구나 틱톡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을 중

심으로 틱톡에 대한 강경한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마이클 갤러거 하원 의원(공화·위스콘신)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공화·플로리다)은 최근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중진의 원까지 틱톡 퇴출론을 주장함에 따라 틱톡 금지에 대한 의회의 논의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www.ksneusa.org (1975~2023 개교 48주년)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2023학년도 봄학기 등록부 *

NE지역 최대 규모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회는 늘 최선을 다해 2세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023 봄학기 일정: 2023.2.18(개학) - 2023.6.10(종강 및 졸업식)
- ⇒ 신입생 소집(온라인): 2월 10-11일 (각 과정별로 인터뷰/반편성 진행)
- ▶ 과정 안내: 기초준비-고급과정(22학급) 이중언어 과정(4) 성인반(2) 오전 특별교육학급(16) 오후 학급(태권도 발레 미술 서예반)
- ▶ 학교 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 등록기간: 2023년 1월 31일까지(재학생)·2월 7일까지(신입생)
- ▶ 오전 및 오후 프로그램 수업 과목 안내: 과정별로 수업 시간은 다를 수 있음
- (1)오전 프로그램(9am-12:30pm): 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작문교육 음악교육·사물놀이·종이접기 교실·문화교육
- (2)오후 프로그램(12:40-1:40pm): 태권도·발레·미술·서예반
- (3)방과 후 도우미(2-4pm): 읽기 학급·이해하기 학급·숙제 도우미 예정
- ▶ 수업료: 마감일 이후 등록: Late Fee \$20
- (1) 오전 학급: \$350/1인 *\$670/2 *\$790/3인
- (2) 병아리반: \$200
- 한 가정에 2인 이상 등록하는 경우 등록금을 3회 분납도 가능합니다.

- ▶ 등록금 수표는 Korean School of New England로 작성해 주십시오.
- ▶ 등록금 보내실 주소: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Il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 등록 문의 & 교사지원과 학교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Homepage: www.ksneusa.org
- ♣ 연락처: 남 일 교장: (508) 523-5389(C), 카카오톡 ID: KSNEUSA
- ♣ Email: koreanschool.ne@gmail.com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는 2세 교육에 동참해 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

2세들의 한글·한국역사·문화교육·음악·미술교육 등 동포 2세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일로 여러분의 격려와 교사로서의 지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교사/보조교사로 2세 교육에 동참해 주실 분은 위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모집부문: 유아교육·2세 및 성인 한글·음악·미술·역사/문화 교육 등

* 교사 자녀 장학금 및 기타 교사회 각종 지원

◀ 등록부(REGISTRATION FORM) ▶

(2022 가을학기 재학생은 변경된 부분만 기록)

한글이름: _____

영문이름 _____

생년월일(년월일): _____ 성별: 남(Male) _____ 여 (Female) _____

출생지(Birth Place): _____ 학년(2022년 가을): _____ 반

부모/보호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집주소: _____

Email: _____

Cell(1): _____ Cell(2): _____

비상연락: (성명) _____ (전화) _____

◀신입생만 기록(New Students Only):한글실력(Korean Level)·자세히 기록▶

★ 말하기(Speaking): _____

★ 듣기 (Listening): _____

★ 읽기 (Reading) : _____

★ 쓰기 (Writing) : _____

오전반 수업료 \$ _____ \$350/1, \$670/2, \$790/3명 *병아리반: \$200

오후반 수업료 \$ _____ \$200/1, 350/2, 450/3인

기부금: \$ _____ (Tax Deductible)

총 액: \$ _____ (마감일 이후 Late Fee \$20)

◆ 학부모님 및 후원자 여러분의 재능기부와 후원(Donation)을 부탁드립니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연방·주정부에 비영리단체(Non-Profit Org)로 등록되어 있어서 후원금의 세금 공제 혜택(Tax deduction benefit)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 온라인 소집 (인터뷰 & 반편성) 일정: 등록서류가 접수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김성태, 800만달러 외 50만달러 추가 北 전달...검찰, 용처 파악

김, 북으로부터 이 대표 방북 지원비 300만 달러 수령증도 받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북측에 건넸다고 인정한 800만 달러(약 100억원) 외에 50만 달러(약 6억원)를 추가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 인사들에게 50만 달러를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야태평화조선야태평화위(조선야태위) 부실장 등 북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건넨 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고, 이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그는 "당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뒤 이 대표와 통화한 것"이라며 "대북 송금에 대해 고맙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2월에도 북측이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

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은 '300만 달러 수령증'(확인서)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령증에는 송명철 조선야태위 부실장 이름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소설"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오는 3월 김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you@yna.co.kr



2023년 1월 검찰로 압송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린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을 거듭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북 자금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 없느냐'고 묻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했다.

이어진 '경기도가 당시 북한에 초청장까지 보냈는데 전혀 관련 사

실을 모르느냐, '승인이나 보고 과정도 없었느냐'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이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월 중국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으며, 이때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그간 김 전 회장과 인연에 대해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며 전면 부인해 왔다.

다만, 지난달 18일 KBS 인터뷰에

서 "전화 통화는 누군가 술 먹다가(저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날짜가 정해졌느냐는 질문에는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여당의 정치 파업 때문에 1월 국회를 사실상 허용세웠다"며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에 대한 핵폭탄으로 악화하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의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을 향해서는 "민생

경제와 주요 이슈들에 대한 당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각종 현안 관련 특위, 태스크포스(TF) 등 활동이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특정 영역의 TF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는 오는 3월 23일 청문회를 열고 틱톡의 미국인 개인정보 관리 관행에 대한 저우서우즈 틱톡 CEO의 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으로 에너지 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틱톡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 사용자의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했다"며 개인정보 문제가 청문회의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FEB. 3rd - FEB. 9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THE FIRST FULL MOON OF 2023. COME CELEBRATE WITH H MART!

휘영청 달 밝은 밤 소원을 빌던 정월대보름! H 마트에서 준비한 견과류, 나물, 곡류 드시고 한 해 동안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세요.

2023년 정월대보름은 2월 5일(일)입니다.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Mango 망고 BOX \$9.99	Malanga 말랑가 LB \$1.2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Korean Singo Pear 한국 신고배 BOX \$34.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Seedless Green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2.99	Ginger 생강 LB \$1.99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4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Short Ribs 생소 LA 갈비 LA STYLE FAMILY PACK/LB \$10.99	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뼈없는 소등심 (스테이크용) SIZE 10 UP/LB \$11.99
Fresh Boneless Pork Shoulder Butt 생 뼈없는 돼지 목전자살 LB \$4.99	Frozen Beef Bones 냉동 사골 LB \$1.49
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4.99	Frozen SEOUL SOONDAE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냉동 서울순대 1.5 LB/PKG \$9.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HWAWOODANG Frozen Spicy Stir-fry Octopus/Cuttlefish/Squid 화우당 낙지/갑오징어/오징어 볶음 SPICY/12.69 OZ/PKG \$6.99	Frozen Salted Sole Fillet 자반 가자미 200-300'S/LB \$5.99
TONGTONGBAY Frozen Unagi Kabayaki 통통배 우나기 8 OZ/PKG \$9.99	TONGTONGBAY Frozen Head-on Shrimp 통통배 머리새우 PREMIUM/30-40'S LB \$5.99
TONGTONGBAY Frozen Squid, Baby Octopus and Octopus 통통배 오징어 1 LB/PKG \$10.99	Fresh Spanish Mackerel 삼치 LB \$4.99

SMART CARD MEMBER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16.99	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 OZ X 16 EA/BOX \$14.99
HAIOREUM Dumplings 해오름 만두 KIMCHI/VEGETABLE /FRIED 2.65 LB \$4.99	I WANT 100% Natural Spring Water 아이원트 100% 내추럴 스프링 워터 16.9 FL OZ X 24 EA/PKG \$3.99

ORGANIC FARM Organic Mixed Grains 10 Different Kinds of Grains 유기농장 유기농 건강혼합 10곡미 12 LB \$36.99	RAW NATURE Cooked Brown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현미밥 7.04 OZ X 12 EA/BOX \$12.99	SEMPIO Soy Sauce 샘피오 국간장 29.08 FL OZ \$3.99	HAIO Ume Plum Syrup 해오름 매실청 24.35 FL OZ \$6.99	HAIO Premium Sesame Oil 해오름 참진한 참기름 56 FL OZ \$16.99
PULMUONE Original Japanese Style Udon Noodles 풀무원 사누끼 우동사리 2.53 LB \$3.99	DONGWON Frozen Shrimp Cutlet 동원 통살새우가스 1.05 LB \$5.99	S&B Golden Curry S&B 골든카레 MILD/HOT /MEDIUM HOT /EXTRA HOT 7.8 OZ \$3.49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4.99	HAITAI Ace Cracker 해태 에이스 크래커 12.84 OZ \$2.99
ORION Chambungobbang Moist & Chewy Cake 오리온 호떡품은 참붕어빵 LARGE/14.1 OZ \$3.99	NONGSHIM Shrimp Flavored Cracker 농심 새우깡 LARGE/14.1 OZ \$6.99	KüHAUS Tower Cool Mist Humidifier 쿠하우스 타워형 콜미스트 가습기 (리모컨 포함) WHITE/5 L \$79.99 \$59.99	Friends Long Fork/Spoon Set 프렌즈 롱 포크/스푼 세트 5 PCS/SET \$22.99 \$15.99	Shu Cream Pigment Comforter 슈크림 피그먼트 차림이불 GRAY/Q (180 X 220 CM) \$109.99 \$89.99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Flavorful Apples, Korean Hot Peppers, Delicious Cabbage... Just Some of the many better ingredients that make our TOBAGI Kimchi the one you crave. Find it exclusively at H Mart.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들여 다듬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levell@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unh@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강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sya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hb@bostonpremierrealty.com
---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박성순 617.538.6973 sp@bostonpremierrealty.com	 다혜연 김 617.217.2037 daehyeon@bostonpremierrealty.com	 정은 987.694.2043 jeun@bostonpremierrealty.com	 나리 박 617.447.0591 naripark@bostonpremierrealty.com	 지두 박 617.780.7839 jide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허 978.866.3248 jheo@bostonpremierrealty.com	 이곤 김 617.543.5728 egon@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김 617.89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희길 김 617.877.0387 heegil@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정 617.538.6973 shwang@bostonpremierrealty.com	 예현 김 401.935.3397 hyehyun@bostonpremierrealty.com	 미사 손 213.503.0397 misa@bostonpremierrealty.com	 미카 허 413.507.1402 mikaheo@bostonpremierrealty.com	 예현 손 781.800.3412 yehyun@bostonpremierrealty.com
 선연 김 781.690.4309 seonyeon@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899.5214 hanheesook@bostonpremierrealty.com	 차민경 617.515.1102 min@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960.6655 grace@bostonpremierrealty.com	 래일 김 617.852.7485 raeil@bostonpremierrealty.com	 손관계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	 길기태 617.721.8088 gilgae@bostonpremierrealty.com
 비연 김 617.935.2713 biyeon@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bostonpremierrealty.com	 Song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0.449.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ark 617.833.10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1.80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i Wang 617.938.7212 lili@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8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dfolk 917.224.59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1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992.1191 ritika@bostonpremierrealty.com
 Ben Florentino 617.775.9538 ben@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e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김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558.0409 jake@bostonpremierrealty.com	 이성현 857.280.0434 seung@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9796 sasha@bostonpremierrealty.com	 Anthony Tran 857.208.4859 anthony@bostonpremierrealty.com



2022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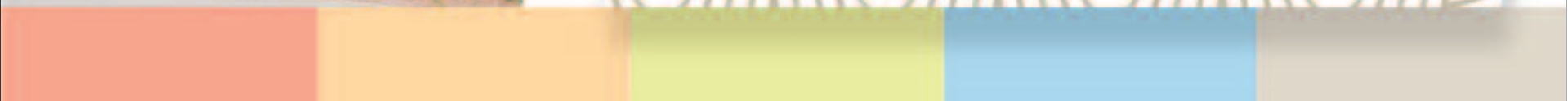
다가오는 2023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리미어 부동산 일동 올림 -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FEB. 2nd - FEB. 9th, 2023

신선하고 육질이 부드러운



LA 갈비

SLICED BEEF SHORT RIBS

\$10.99
LB

SOFT AND TENDER



*KOREAN STYLE
BARBEQUE RIBS*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톤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이 광고를 보는 한국연변진흥재단의
정부를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정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Catholic Church in Boston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 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 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교사 / 학생 모집
[교사 모집]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 합니다.
[2022-2023 등록 안내]
등록금 330불+등록비 20불
(한 자녀 330불, 두 자녀 640불, 세 자녀 950불)
*8월 14일까지 등록시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문의: 교장 전화: 617-610-2743
이메일: BostonCatholicKoreanSchool@gmail.com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를살을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ing,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에 한국의 K-pop과 K-drama를, 다음은 한국어가 바짝!

글 : 영제시 CNN,
제공 : 김은한 박사, 이충시 박사 & 남일 교장

CNN: 한국어를 배우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한류"라고 부르는 세계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여러 시장에서 중국어와 같은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경쟁 언어를 능가합니다.

Duolingo 회사의 연례 언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한국어는 학습 앱 Duolingo에서 7번째로 가장 많이 학습된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공부되는 외국어로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특별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몇 년 동안 미래의 상업언어로 여겨져 온 중국어는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중국 인구의 규모 덕분에 Duolingo에서 지난 몇 년간 8위에 머물렀습니다. 10년, 한국보다 뒤떨어졌습니다.

언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는 Duolingo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학습된 아시아 언어로 일본어에 이어 근소한 차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Duolingo는 한국어가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보다 앞서고 이탈리아어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는 여전히 상위 2개 자리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한류 또는 한국 문화의 국제적 확산인 "한류" 덕분이라고 전문가들과 교사들은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수출은 K-pop과 한국 TV 드라마에서 미용 제품, 패션,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국은 국제 문화 강국이 되었고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2021년에 "우리는 모두 한류의 정점을 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어 유래 단어를 20개 이상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부터 음악과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음 수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서주원 컬럼비아대 한국어학부 국장은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한국에 대한 국가 인식, 한국 문화와 사회,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제는 더 현대적이고, 진보되고, 시장성이 있고, 더 멋지고, 더 세련되게 인식됩니다."

언어 수업 증가

수십 년 동안 해외 동아시아 언어 연구는 대부분 북경어와 일본어에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사이의 노래 '강남스타일', 2019년 스릴러 '기생충', 2021년 넷플릭스 쇼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의 등장 등 한국 아티스트와 감독들의 대히트 이후 지난 10년 동

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K-pop의 가장 큰 글로벌 인기입니다.

수치는 같은 기간에 언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언어협회(Modern Language Association)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 한국어 수업 수강생은 2002년 5211명에서 2016년 1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배우기 쉽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약은 놀랍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어를 영어 사용자에게 "매우 어려운 언어"로 지정하고 전문 업무 숙련도를 달성하는 데 평균 88주가 걸립니다.

현대 한국어는 한글이라는 음성 문자를 따릅니다. 즉, 특정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기호를 사용하는 중국어와 같은 비음성 언어와 달리 음절은 일반적으로 쓰여진 그대로 발음됩니다.

Columbia 강사인 Suh는 2015년경에 처음으로 관심의 증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3~4년 동안 가속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한국어 과정에 등록한 컬럼비아 학생의 수가 50% 증가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다른 대중적인 언어는 지난 10년 동안 숫자가 안정되거나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수업에 등록한 미국 학생들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언어협회(Modern Language Association)에 따르면 중국어 등록은 2016년까지 감소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인권 유린 혐의로 인해 서구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다.

서 교수는 "미국 고등교육에서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중국, 러시아, 포르투갈 등 경제와 지정학적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인식이나 평판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현대 언어 대학 위원회(University Languages of Modern Languages)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강하는 고등교육 학생의 수가 3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어는 5% 증가에 그쳤고 프랑스어와 같은 여러 유럽 언어인 독일어와 불란서어는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노력

한국어의 새로운 인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한 당국은 성공적인 수출에 힘입어 한국어를 홍보할 기회를 무작정 뛰어 들었습니다.

존 월시(John Walsh)는 2014년 이 현상에 관한 저서에서 "한국이 진정 서구 선진국의 일부라는 것을 사회적 수준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설득한 것은 한류"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결국 "외교, 투자, 교육 및 무역 분야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정부의 능력을



2022년 4월 3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어워드에 참석한 K팝 그룹 방탄소년단

강화했다고 그는 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에서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2017년에 한국어 교사 수십 명을 태국을 포함해 해외에 파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한국 교육부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학교 커리큘럼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설립한 한국어 브랜드인 세종학당은 웹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44개의 학습 센터를 설립했다.

교육부는 2017년 보도자료에서 "한류 열풍으로 널리 보급된 한국어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현지 학교 교과 과정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한국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 걸음이 되어 한국과 다른 나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한류는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의) 무엇이든" 미화하면서 지역적 차이나 계급 갈등 등 한국 문화와 사회의 뉘앙스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단순화가 한국 정부가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어떤 떠오르는 소프트 파워도 겪어야 할 수 있는" 일로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pop에서 취업까지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추구하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테이블에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특정 경향은 지역과 민족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한류는 비문화권 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 한국계 학생들은 보다 "통합적인" 이유로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경향이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뉴욕대 동아시아학과 이지영 겸임 강사는 Instagram and TikTok 등 SNS 플랫폼의 부상을 꼽았다. 이들은 국제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한국어 학습자 수에 "대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이전에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한

국어 가르쳤던 Lee는 세계 여러 지역의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문화를 즐기는데 더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는 경향이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반면 동남아 학생들은 한국에 취업하거나 모국의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남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한국 브랜드의 수가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M 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싱가포르 본사와 함께 동남아시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편의점 체인 GS25는 베트남에 18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말레이시아에 착공할 예정이다.

한국 비즈니스와 대중문화의 확장이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여행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동남아인은 한국 유학생의 40% 이상, 한국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30%를 차지한다.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어학을 가르치는 Jeffrey Holliday(영어로 수업)는 그의 학생의 약 40%가 교환 학생이며 대부분 미국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서울에서 몇 학기 동안만 학생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거의 모두 K-pop과 같은 한국 대중문화의 열렬한 팬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한편,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한국에서 일 자리를 찾고 있는 그의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다.

"내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에서) 대학에 다닐 때... 나 혼자만 한국계 미국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은 여기에 오고, 매우 집중하고, 매우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CNN의 Jake Kwon과 Gawon Bae이 보도에 기여했습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22) 주식배당금(Dividends)의 중요성

작년(2022)의 주식시장은 투자자 모두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두 자리 숫자로 폭락했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18.4%, 외국 주식은 17.1%, 그리고 채권 시장은 13.5%로 하락했다. 장기 정부 채권은 무려 30% 이상 폭락했기에 투자자 대부분이 투자의 뼈아픈 경험을 한 것이다.

주식시장의 폭락은 마음 아픈 경험이지만, 주식 투자 기본을 고려한 장기 투자자에게는 재정적으로 심한 타격은 아니다. 작년 한 해는 물론 하락했지만, 그 전 3년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31%, 18%, 그리고 28%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2019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체 수익률 60% 상승이며 연평균은 13%이다.

팬데믹 시작과 함께 주식시장 열풍으로 특정한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한 '묻지마 투자'의 결과는 나의 소중한 자산 손실은 물론 현재 이 순간에도 자산이 불어날 기회

를 놓치고 있다.

주식 투자하면 요행을 기대하며 대박(?)을 기대한다. 이런 이유로 주식 가격을 수시로 전화기(Smart Phone)로 확인하지만, 자산 증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정한 기업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했다면 작년 주식배당금으로 얻은 이익이 \$561 billion이 된다고 월스트리트(Companies spend record amounts on dividends, despite looming downturn, Mark Maurer, WSJ, December 30, 2022)지가 발표했다. 주식배당금은 주식에 폭락해도 받는 수익이다.

주식 투자에 주식배당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본다. 주식시장 1928년부터 2022년까지 주식 가격 상승만을 계산하면 연평균 5.8% 그리고 총수익률은 21,519%가 된다. 참고로 주식시장 지수는 1928년 18에서 2022년 3,800으로 상승했다. 이것만으로도 높은 수익률이고 놀라운 자산 증식이다. 여기에 기업에서 지급한 주식배

당금(Dividends)을 포함하면 연수익률은 9.9%가 증가하고 총수익률은 750,000%로 대폭 증가한다.

수익률이 5.8%에서 9.9%는 약 70% 상승이지만 총수익률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에 750,000%가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주식배당금의 수익률이 4.1%인데 투자자 대부분이 이런 혜택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포기하는 것이다.

1928년은 95년이란 길 세월이다. 투자자 대부분이 이런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하여 30년 간씩 나누어 살펴보자. 1933년부터 1962년까지 주식 가격 상승은 8.3%이고 주식배당금을 포함하면 12.8%이다. 1963년부터 1992년까지는 주식 가격 상승은 6.0% 그리고 주식배당금 포함하면 10.8%로 증가한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주식 가격 상승은 7.5% 그리고 주식배당금을 포함하면 9.6%가 된다. 주식 투자 수익은 시점에 따라서 변화하지만 중요한 요점은 투자자

산 증가에 주식배당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는 없다. 기업은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생산한다. 기업의 주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실제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기업 일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기업은 경제의 기본이며, 경제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어느 비즈니스나 자금 동원(Cash Flow)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제품을 연구해서 생산하고 직원들 봉급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경제 침체기(Recession)가 온다는 침울한 분위기에서도 대다수(37개)의 기업이 주식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현금 보유가 원만하고 경제 활동이 완만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1년에도 \$511 billion을 지급했다. 이런 놀라운 주식배당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식 대박을 기대하지 않고 미국 500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한 투자자만이 받는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일 무렵에 한시적으로 유지되었던 군단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백제의 유민이 신라군의 진격을 차단하였다. 진격에 차질을 빚게된 김유신은 흠돌에게 군량미 보급의 임무를 맡김과 동시에 백제부흥군/유민을 계속 공격(하는 척)하면서 아군을 엄호하게 하였다. 그리고 김유신은 부대를 우회하여 습격한 결과 그들을 항복시켰다.

그후 668년6월21일, 대야찬(5등급) 김흠돌은 김인문, 김흠순, 천존, 지경, 문충, 진복, 양도, 개원 등 당대의 명장들과 함께 대당총관(大幢總管424)에 임명되어, 당시 신라 전국에서 징발된 병마와 총관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참전하였다.

김흠돌과 함께 대당총관으로 임명된 당대 걸출한 장군9명의 면면과 함께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자녀들을 보고자 한다. 김춘추에게는 문명왕후(김문희)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부인이 있었다. 화랑세기에 따르면 16세 풍월주 설보종의 장녀 보라寶羅가 그의 부인이다. 김춘추와 보라는 딸 고타소(김품석의 부인)를 낳았다. 보라는 그후 곧 사망하였다.

그리고 김유신의 동생 문희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7남1녀를 낳았다. 장남 김법민은 제30대 문무왕이다(왕후는 21세 풍월주 김선품의 딸 자의). 차남 김인문(金仁問)은 삼국통일을 이룩하는데 김유신에 버금가는 공을 세웠고

대당외교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문무왕이 그를 김유신, 김흠순과 함께 '신라의 3보3寶'라고 극찬하며 아꼈다. 3남 김문왕(金文王)은 648년 당나라에 가서 좌부위장군을 지냈다. 658년 시중을 역임하였고, 661년에는 사비성에서 백제부흥군과 전투하였다. 4남은 김노차(金老且)이다. 5남은 김인태(金仁泰)이다. 인태는 후궁 영창부인(보희)의 소생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화랑세기에는 13세 풍월주 김용춘의 딸 용태가 낳은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6남은 김지경(金智鏡)이다. 지경은 668년 시중이 되어 671년 까지 그 위에 있었다. 7남은 김개원(金愷元)이다. 개원은 695년 상대등에 올랐다. 그리고 딸 지소공주는 김유신의 부인이 되었다.

후궁 영창부인도 여러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들 김지개문, 김지원, 김차득(화랑세기에는 김용춘의 딸 용보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김마득, 김인태(문명왕후의 아들?)와 딸 요석공주가 있다.

문무왕 김법민이 김유신을 비롯하여 대당 총관들을 이끌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할 때 그의 동생 3명도 대당총관으로 임명하여 군사들을 지휘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대당총관에 임명된 나머지 다섯명을 보면 김흠순은 19세 풍월주를 역임하였고, 또한 김유신의 동생으로 형 못지 않은 대장군으로 당대에 걸출한 명장이었다. 천존은 후일 시중을 역임(679~

683년)한 유능한 장군이였다. 문충은 화랑 죽지를 이어 2대 시중을 역임(655~658년)하였다. 장군 진복은 시중(665~668년)으로 고구려 정벌에 참전하였고, 후일 '김흠돌의 난'을 진압한 후, 김군관에 이어 상대등에 올랐다. 백제와 고구려의 정벌, 그리고 당나라를 격퇴하며 삼국을 통일하는 선봉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장군들은 그후 일부는 반란을 일으켰다 실패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대부분 상대등, 시중 등 고위직에서 통일 신라를 더욱 부흥시켰다.

423) 육정(六停)의 하나인 대당(大幢)을 통솔하는 최고군관으로 정원은 네명이였다. 관등이 진골상당(眞骨上堂)에서 상신(上臣)에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었다.

행군시 특정 고관에 의하여 겸직되는 것이 관례였다. 661년2월(태종무열왕 재위)에는 김품일이, 7월(문명왕 재위)에는 김인문, 김진주, 김흠돌이 임명되었다.

424) 문무왕 원년에는 장군으로 그 후로는 총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이번에는 김흠돌이 화랑도 수장인 풍월주로 화랑도를 이끌고 백제 정벌에 참전한 전투와 662년 그 위치를 김오기(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의 아버지)에게 위임한 후 장군으로써 668년 까지 고구려 정벌, 그리고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여 신라 전역을 차지하려했던 당나라와 치륄 나당전쟁(670~676년)에서 승전하면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격퇴하고 삼국통일을 이루는데 일조한 그의 활동상을 삼국사기와 화랑세기를 통해서 조명해 보려고 한다.

김흠돌은 풍월주 재임시 많은 화랑도를 지휘하여 김유신, 김춘추, 김인문 등의 휘하에서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고, 660년 백제 정벌에서도 혁혁한 전공을 올렸다.

661년(문무왕 원년)에는 김인문(金仁問), 김진주(金眞珠) 등과 함께 대당장군(大幢將軍423)에 임명되어 고구려 원정군을 지휘하였다. 이때 문무왕이 전체 군단을 통솔하였고, 흠돌은 대장군 김유신을 보좌하여 사이곡정(삼국통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TALK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a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멍뭉이' 유연석 "강아지에게 도움받으며 연기했어요"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1천만 반려인이 함께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웃음)" 영화 '멍뭉이'에서 주연을 맡은 유연석이 31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보고 있으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3월 1일 개봉하는 '멍뭉이'는 민수(유연석 분)가 동생 같은 반려견 루니의 새 가족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다. 민수의 사촌 형 진국(차태현)이 그 여정을 함께한다.

연출을 맡은 김주환 감독은 세상을 떠난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생각하며 작품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전 영화를 준비하면서 많이 바빴어요. 어느 날 식사하는데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10년 넘게 기른 강아지 두 마리가 있었는데 어머니께 잘 있냐고 하니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쁘고 힘들어서 말을 안 했다고... 가족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임종은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

지 못한 게 한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세상의 강아지들이 조금 더 행복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전작 '청년경찰'(2017)에서 두 경찰대생의 우정을 코믹하게 그려냈던 김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는 두 친척 형제의 브로맨스를 담아냈다.

김 감독은 "'멍뭉이'는 두 친척이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찾아 나가는 여정"이라면서 "'청년경찰'이 젊은 아이들의 티키타카가 있는 코미디였다면, '멍뭉이'는 일종의 '친척 버디극'"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또 다른 주연 배우인 강아지 루니가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감독과 배우들은 강아지와 함께 촬영하며 있었던 에피소드를 털어놓기도 했다.

김 감독은 "강아지는 통제야 안 돼서 그냥 내버려 뒀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었다"고 회상했다.

유연석은 함께 호흡을 맞춘 강아지 루니에 대해 "놀랍도록 의젓

한 친구다.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았다. (강아지에게) 얹혀서 (작품을) 찍은 것 같다"며 웃었다.

"루니는 이미 훈련된 견공이었지만, 오랫동안 키웠던 반려견의 느낌을 주는 건 교육으로 할 수 없잖아요. 촬영 전부터 훈련소에 자주 가서 놀아주면서 유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촬영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 감정을 표현해주더라고요. 제가 루니를 보면서 덩달아 연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차태현은 "촬영할 때 여름이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개들은 피곤하다 싶으면 바로 들여보내고 휴식하게 했다"면서 "이거야말로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유연석과 차태현은 드라마 '종합병원 2'(2008) 이후 10여 년 만에 이번 작품으로 재회했다.

유연석은 작품을 택한 이유로 차태현을 꼽았다. "'종합병원 2' 때 좋은 기억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영화를, 그것도 친척 형으로 함께 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형과의 '케미'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 6월 촬영을 시작한 '멍뭉이'는 코로나19로 개봉을 2년간 미룬 끝에 관객을 만나게 됐다.

차태현은 "개인적으로 기적적인

개봉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너무나 편하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2월 5일 - 2월 1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쥐띠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p> <p>● 운수: 주위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 애정: 특별한 사이가 아닌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편했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7, 10일 길일, 5, 8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소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p> <p>● 운수: 가벼운 해프닝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을 두고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 금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버는 기회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애정: 너무 완벽한 것도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8, 11일 길일, 6, 9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범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자가</p> <p>● 운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 금전: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믿음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 애정: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배우자나 연인에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5, 9일 길일, 7, 1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토끼띠 원하는 방향으로</p> <p>● 운수: 드디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돈까지 들어오면서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큰 무리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불같이 뜨거운 열병 같은 사랑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드는 정이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용띠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p> <p>● 운수: 불필요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전: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돈을 앞에 두고 욕심 내지 않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애정: 감정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거나 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나아질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7, 11일 길일, 5, 9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말띠 큰 행복감을 줄</p> <p>● 운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힐링도 될 것입니다. ● 금전: 직원이 고객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직원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 애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6, 8일 길일, 9, 1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말띠 가랑비에 옷 젖듯이</p> <p>● 운수: 너무 먼 미래까지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앞에 일에만 신경 쓰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자기 조절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다가 후회만 남기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 애정: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6, 9일 길일, 8, 1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양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을</p> <p>● 운수: 후회할수록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은 이제 그만 손에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하세요. ● 금전: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갈 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금방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게 계산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간에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6, 10일 길일, 9, 1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원숭이띠 겸손하게 처신해야</p> <p>● 운수: 진심으로 내 편에 서서 도움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 금전: 아는 척이나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처신해야 사람을 얻고 이득도 따릅니다. ● 애정: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문득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8, 11일 길일, 5, 1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닭띠 수월하게 진행될</p> <p>● 운수: 서로 함께 갈 수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계약이나 매매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던 일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속상했던 것을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7, 8일 길일, 9, 1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개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p> <p>● 운수: 잘못된 상식으로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금전: 당장 큰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매상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좋은 관계는 자신에게 묘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독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7, 9일 길일, 6, 8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돼지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p> <p>● 운수: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용하면 진짜 아플 때에 써도 효과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금은 당장 크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애정: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로 인해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6, 11일 길일, 7, 10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부동산법 및 상속법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실 사무장님
구합니다. (경험자 우대)
Tel 781-762-1700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셰프 및 키친 스태프
Tel 617-308-474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덴탈 랩 매매합니다.
Tel 508-215-9122

베벌리 타운 피자 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BTS 뷔 출연하는 나영석 PD 새 예능 '서진이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tvN은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예능 '윤식당'의 스핀오프 '서진이네'를 선보인다.

배우 이서진이 '윤식당' 멤버 정유미, 박서준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한다. '윤식당'에서 주방을 담당하던 윤여정이 빠진 대신 '월드스타' 뷔가 합류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최우식이 새 멤버로 활약한다.

티저 영상을 보면 '서진이네'는 김밥, 라면, 떡볶이, 핫도그 등을 판매한다.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을 팔던 '윤식당'보다는 가벼운 메뉴들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서진이네' 제작진은 "한식이라기보다는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생각"이라며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없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방송에 담고 싶었다.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이 스스럼없이 한국에 대한 인상이나 한식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서진이네'에는 수의 우선의 경영철학이 있다. '윤식당' 때와 달라진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이라며 "화려한 스타들이 잠시나마 식당의 직원으로 일하는 모습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인간적인 매력도 느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해외에서 한식을 선보이는 예능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동안 맥이 끊기면서 아쉬움을 샀다.

'윤식당1·2'(2017·2018)를 비롯해 '국경없는 포차'(2018~2019), '현지에서 먹힐까?-중국·미국편'(2018·2019) 등



은 예능의 재미를 살리면서 한식에 대한 호감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어떤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생기면 그 나라의 음식도 문화 체험의 핵심적인 콘텐츠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식은 한류와 더불어 지속하기 좋은 콘텐츠로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

했다.

이어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예능은 유명 연예인들이 부엌에서 칼질하고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일상생활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재미도 있어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aeran@yna.co.kr

뉴진스 인기 고공행진...스포티파이 '주간 톱 송' 상위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새 싱글 'OMG'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

스포티파이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글로벌 '주간 톱 송' 차트에서 수록곡 '디토'(Ditto)와 동명의 타이틀곡 'OMG'는 각각 18위, 24위를 차지했다.

'디토'는 이로써 최근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1억회를 달성한 데 이어 3주 연속 글로벌 '주간 톱 송' 20위권에 드는 성과를 냈다.

이 노래는 대만 '주간 톱 송' 1위와 미국 36위를 비롯해 23개 국가 차트에 진입했다.

'OMG'는 싱가포르 3위와 미국 33위 등 18개 국가 '주간 톱 송'에 진입해 인기를 끌었다.

뉴진스는 전날 전파를 탄 KBS 2TV 음



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에도 두 곡을 모두 1위 후보로 올려 'OMG'로 1위를 거머쥐었다.

뉴진스는 1위 수상 이후 "멋진 상을 주셔

서 감사하다"며 "버니즈(뉴진스 팬)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tsl@yna.co.kr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만남과 인연에 대해 생각해보며...

삶에서 무엇보다 '만남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편이다. 쉬이 사람을 사귀지는 않지만, 찾아오는 이를 밀어내는 성격도 아닌 까닭에 편안하게 만나는 이들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몇 번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거리일지 대략 짐작은 하게 된다. 오십의 중반에 올라보니 무엇이든 쉬이 가지려 하지 않으니 또한 쉬이 버리려 하지 않는다. 요즘은 새로운 인연보다는 지금까지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어찌 인연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만나게 되고 헤어지게 되겠는가.

인생에서 사람은 많이들 가까운 이들에 대한 기대한 만큼 따라 실망도 비례한다는 생각을 한다. 무엇인가 특별히 바라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냥 곁에 있어 줘서 좋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고마운 일이지 않겠는가. 생각은 그렇다고 하지만, 마음에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대가 생기는 모양이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다 보면 속 얘기도 하게 되고 서로에게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위로자가 되기도 하지 않던가. 하지만 그 관

계가 지속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아픔과 미움이 되기도 된다.

우리는 만날 때에 미리 알지 못했던 것처럼 헤어질 때에 미리 알지 못하기에 이별의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을 한다. 미리 헤어짐을 알았다면 서로에게 조금은 덜 아픈 상처로 남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모두가 지나고 나면 떠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조금 더 잘해줄 것을 조금 더 이해해줄 것을 조금 더 보듬어줄 것을 모두가 떠난 후의 이별 앞에서의 멈칫 마주침이다. 늘 '때' 그때를 알지 못하는 이유이고 까닭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곁에 있는 이에게 더욱 최선을 다하길 소망한다.

가족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생각을 한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화들짝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에게 호감이지 않더라도 찡그리지 않은 표정으로 대하는 관계이면 좋겠다. 만남이란 서로 마주하고 얘기하고 마음을 나눠서 좋고 그 만남을 뒤로하고 돌아서 오는 길이

평안하면 참 좋은 만남이라는 생각을 한다. 서로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서로의 삶에 박수로 응원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설령, 그 어떤 이유로 헤어짐이 이별이 있을지라도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길 말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헤어짐이 이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것은 서로에게 오해가 있어 헤어졌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오해로 인해 서로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다.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해명이 되고 변명이 되어 오히려 오해는 더 커지고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냥 시간을 기다려 볼 일이다. 그저 시간을 따라 함께 흘러가 볼 일이다. 어느 날엔가, 그 인연이 꼭 내게 있어야 할 인연이라면 돌아 돌아서 다시 내 곁으로 올 것인 까닭이다.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흐르는 것을 어찌 내가 막을 수 있으며 잡을 수 있겠는가.

혹여, 서로의 오해로 빚어진 헤어짐이나 이별이라면 그 인연도 참으로 고마운 인연

일지 모른다. 그것은 흑한의 겨울나무가 세찬 비바람과 맞서 싸우고 견디며 마디가 생겼듯 인생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삶의 든든한 마디가 되어준다면 더 없을까. 그 어떤 일이든 관계이든 간에 그저 흘러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키우길 기도한다. 그저 보내도 속이 상하지 않을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을 그만큼의 여유로운 마음이길 말이다.

무엇인가 차고 넘치면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 않던가.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도 그렇거니와 서로의 인연도 그렇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게 생각하니 새로운 만남이라고 화들짝 거릴 것도 헤어짐이라 해서 그리 서운해질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말이다.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며 만나고 다시 또 헤어지는 그 이치를 조금씩 알아가는 까닭에 모두가 감사라고 고백하는 오늘이다. 작은 숲속의 바람을 느껴보라. 그 속에서 잠든 오감의 감성들이 털끝을 세운다. 아, 이 살아있음의 감사가 절로 넘쳐흐른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더 바랄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질문과 답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 속담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한걸음 더 나간다. 질문이 옳아야 대답도 옳다.

한국 대통령 도어 스탓핑이라 한다. 질문하던 어느 기자가 슬 퍼 차림이라 했다. 정제 안된 투박한 어투였다고도 했다. 대통령도 편치는 않았던가. 일은 영똥한 방향으로 흘렀다. 이젠 매일아침 대통령과 기자들이 직접 만나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볼수 없다고 한다.

철학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삶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할까? 철학자가 아닌 나

역시 자문自問 할적이 있긴 하다. 이런 질문은 깊고 넓을테니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닐게다. 주위 들은 모범 답안만 끌어대곤 정당일꺼라 우긴다. 그러나 듣고 싶은 대답만 들으려 하는 건 아니다.

문정희 시인이다. 제목은 아들에게인데 한구절이다.

이제 쳐다보기만 해도
훌쩍 큰키의 젊은 사랑아
너와 나 사이에는 무슨 신이
한분 살고 계시서

이렇게 긴 강물이
끝도 없이 흐를까?
(문정희, 아들에게 중에서)

우리집 아이도 컸다. 그런 아이에게서 새해 선물을 받았다. 책인데 제목이다. 'Dad, I want to hear your story'. 아버지 내 이야기를 쓰라는 요구인게다. 받아 들곤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책을 들쳤다. 선물 치고는 무거운데, 이해 못할 바도 없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아야 할테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발상일테니 말이다.

책을 읽고 있다. 아니 답하고 있다고 해야 옳겠다. 질문들은 다방면에 걸쳐 있어 난감

한데, 성의는 보여야 할터. 질문엔 모범답안은 없다만 내 대답이 정당일게다. 최고 보다는 최선이라 했으니, 최선을 다하려는 다짐이다. 또한 옳고 그름이 없을 테니, 점수는 후할꺼라 믿는다. 아들이 채점할 테니 말이다.

모택동이 말했다던가. '모든 걸 보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든걸 알고 싶다.' 보고를 받을적에 질문했을까 궁금하다. 내 오지랖은 넓지만, 아이의 질문에 모두 대답해야 할까? 솔직할 수는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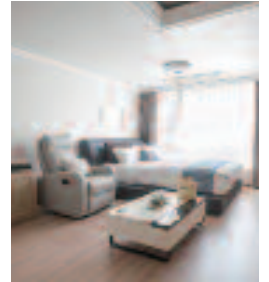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 5:17)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힌다리교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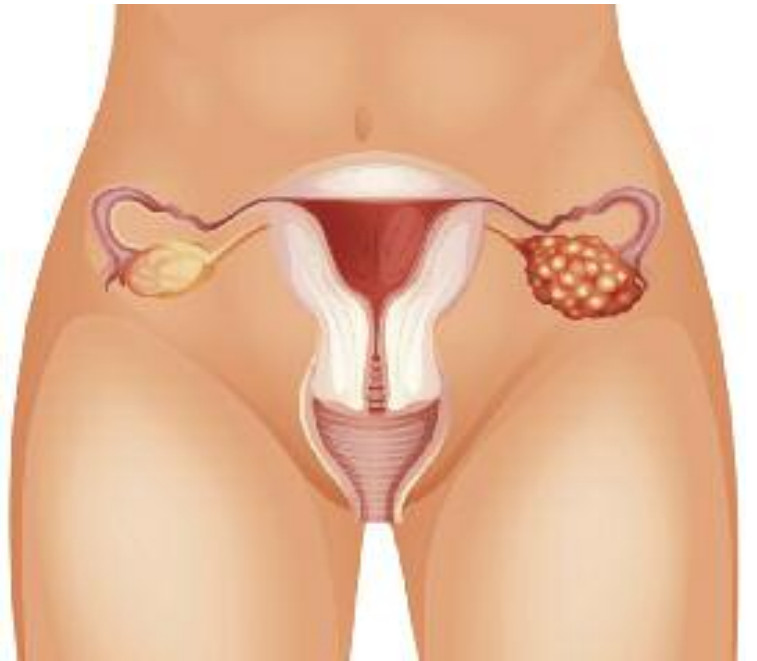


협력업체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 늦어 치명적인 난소암, 중장년 위협한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초기 증상은 거의 없고...유방암, 갑상선암에 비해 생존율이 낮아 여러 부인암 중 치명적인 암으로 손꼽히는 난소암에 대해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내과 홍 진현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난소암은 한쪽 혹은 양쪽 난소에 생길 수 있으며, 50~70세에 가장 흔하게 발병한다. 난소암의 90% 이상이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성 난소암이다.

국립암센터의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9년 난소암 유병자 수는 2만 4259명이었다. 부인암 1위로 꼽히는 유방암 환자는 25만 8172명으로 전체 여성 암환자 중 21%를, 난소암은 2%를 차지했다.

난소암은 유방암, 갑상선암에 비해 발생 빈도가 적지만 사망률은 높은 편이다.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어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난소

암의 5년 생존율은 64.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유방암 93.6%, 자궁경부암 80.5%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5년 생존율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기대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난소암은 다른 장기에 전이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혹 증상이 나타나도 하복부 또는 복부의 불편함, 통증, 소화기 증상이 불분명해 진단이 늦어지곤 한다.

난소암이 진행되면 월경이 불규칙하고 폐경 이후 비정상적인 질 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복막과 림프절 전이가 잘되며 복수가 차거나 골반 내 림프절이 붓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난소암의 원인 중 하나로는 과거병력이 꼽힌다. 본인이나 가족이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의 과거 병력이 있으면 난소암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유방암이 생기면 난소암이 생길 가능성이 2배, 난소암이 있으면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3~4배 많아진다고 알려졌다.

또 배란 횟수가 적을수록 난소암 위험은 낮

아진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출산 경험과 모유 수유가 있다. 출산 횟수가 한번이면 출산을 전혀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10%가량 위험이 줄고, 세 번 출산하면 난소암 위험도가 50% 줄어든다.

출산 후 수유를 할 때도 배란을 억제하고, 먹는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에도 피임약이 배란을 억제해 난소암 위험이 감소한다.

세란병원 산부인과 서은주 과장은 “난소암 환자의 60%가 이미 증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다”며 “조기는 증상이 거의 없고,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는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찰을 받으러 오다가 내진,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난소암 초기 검진은 부인과 초음파를 통해 난소 종양을 진단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악성위험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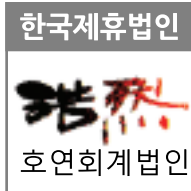
서과장은 “난소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간이 나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초기 난소암은 난소 및 자궁 적출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진행된 난소암은 수술 후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소암은 상당히 진행해도 증상이 경미해 배가 아프거나 딱딱한 것이 만져져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 발견되므로 조기 진단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덧붙였다.

“조기 발견 늦어 치명적인 난소암, 중장년 위협한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미국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과 관련된 이민의 새로운 규칙 - 2부

일반적으로 이민 담당관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개인이 언제라도 미국 정부에 재정 지원을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경우 비자 신청,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9일, 이민 당국은 위와 같은 특정 조항을 포함한 2022 최종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3일에 이민 당국은 이 최종 규칙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게재된 이 칼럼의 1부에서는 이민법의 이 특정 조항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해당 조항이 2022년 9월 9일에 발표된 이민 당국의 가장 최근 최종 규칙으로 이어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2022년 9월 9일에 발표된 새로운 2022최종 규정의 주요 하이라이트와 2022년 12월 23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2022 최종 규칙에서 미국 이민 당국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과 증거 및 기록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언제든지 재정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민 당국은 해당 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당국이 고려할 요소로는 신청자의 연령, 건강, 가족 상태, 자산, 자원, 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 이민 인터뷰 중 진술,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된 증거, 건강 검진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증거입니다. 당국의 결정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신청자가 소득 유지를 위한 공공 현금 지원 프로그램 또는 정부비용으로 제공되는 요양원 또는 정신 건강 기관과 같은

장기 보호 시설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득 유지를 위한 공공 현금 지원"이라는 용어가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또는 주, 부족, 지역에서 제공하는 소득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만이 해당됩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위에서 언급한 특정 공공 혜택이 신청자가 미국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유일한 공공혜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 이민 당국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기타 공공비현금 혜택들은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국은 정부 재정 지원 의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 공공비현금 혜택 목록을 제공하였는데 그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푸드 스탬프 또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COVID-19 테스트 또는 예방 접종, 학자금 대출, 실업 보험, 주택 혜택, 학교급식 프로그램, Medicaid(다만 사회보장법 섹션 1905(a)에 따라 장기 시설 보호에 대한 Medicaid 자금 지원은 제외). 또한 "정부비용으로 장기 보호 시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에는 범죄의 유죄 판결로 인한 징역형과 재활 목적으로 받았을 수 있는 짧은 기간의 보호 시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민 당국이 신청자가 언제든지 재정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당국은 신청자의 금전적 채권을 게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Property Tax / Tax Appeal

30년차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나 스스로를 셀러나 바이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중매쟁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또 한가지에 나의 재능은 부동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중에 하나가 가옥세 조정(Property tax adjustment)이다.

가옥세를 조정하려면 가옥세가 어떻게 측정 되는지 측정 되는 과정을 알아야 한다. 타운에서 책정하는 대지가(LV: Land Value)와 건물가(IV: Improvement Value)를 합산하면 타운에서 정하는 부동산가(TV: Taxable Value)이 되고 여기에 타운의 가옥세율(TR: Tax Rate)을 곱하면 가옥세(Prop-

erty Tax)가 된다. 보통 현 마켓가격과 근접하게 타운 부동산 값이 정해지지만 이는 타운에 따라서 다르다. 가옥세는 가옥세율과 비례한다. 부동산 소유주는 매년 2월경 타운으로 부터 세금 카드를 받고 TR, TV, ER, IV 등의 용어를 접하게 된다. 모든 브리비에션에 대해서 다 설명 드린거 같은데 ER만 설명 못 드린거 같다. ER: Equalization Rate은 실제 거래가와 타운 책정가와의 비례율을 말한다. ER이 90.08란 말은 타운이 정한 부동산 값이 실제 거래값보다 9.92% 낮게 책정 되었다는 의미이다

집일 경우 그해 당장 타운 주택값이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 계산법이 어느 주택에나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타운책정주택가(TV)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한 분은 가옥세 조정을 해 볼만하다. 단 숏세일이나 은행 소유는 제외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게 좋다. 가옥세 조정 신청서(Tax Appeal Application)는 타운 Assesor office에 문의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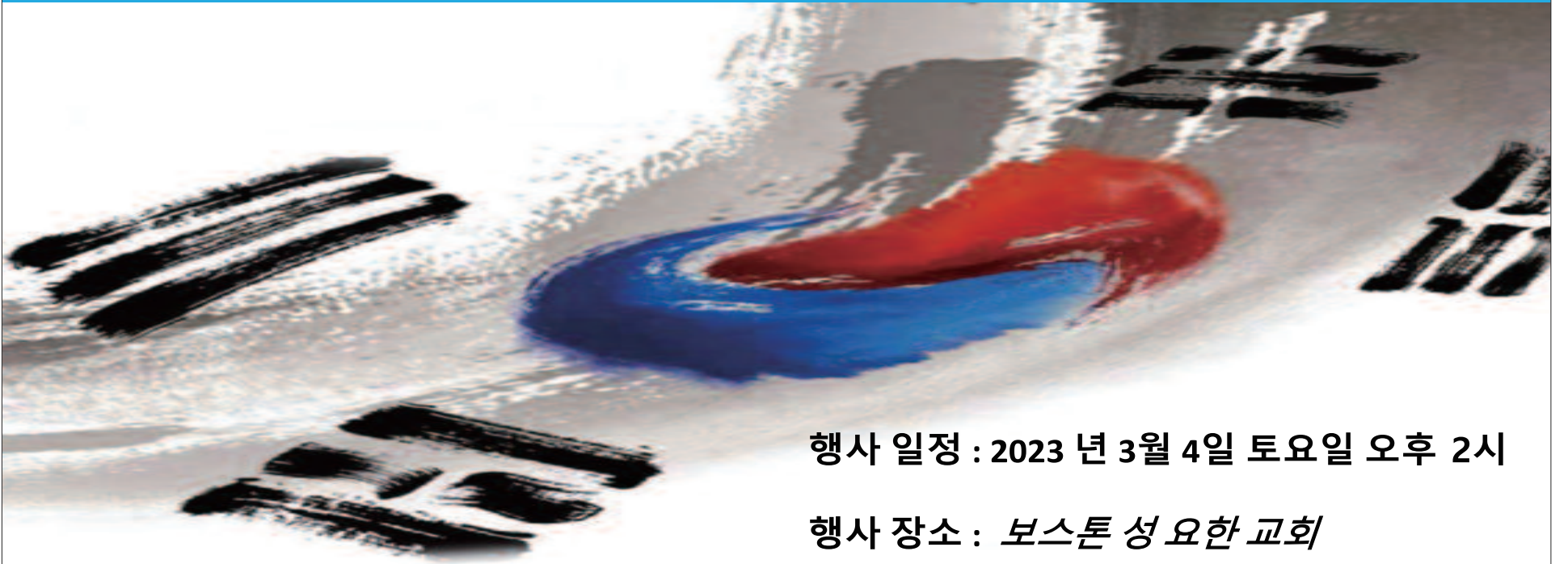


가옥세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타운 주택가(Taxable Value) x 타운 가옥세율(Tax Rate)이다. 타운에서 책정된 부동산 가격(TV: Taxable Value)은 대지가(LV: Land Value)와 건물가(IV: Improvement Value)를 합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타운이라도 대지가 값이 다를 수 있다. 물론 타운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타운은 큰 길가에 있는 대지는 대지가 낮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대지가 높다. 타운에서 책정된 주택가(TV)는 타운에서 고용한 주택 감정사(Real Estate Appraiser)를 통해 책정되지만 해마다 주택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단장한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104주년 3.1절 기념행사





1919.3.1 - 2023.3.1



행사 일정 :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행사 장소 : **보스톤 성 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Zoom ID : 785 059 1183

- 행사 주최 :
-  매사추세츠 한인회
 -  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
 -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  뉴 햄프셔 한인회

행사 협찬 : **보스톤 코리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매사추세츠 한인회 총회 공고

매사추세츠 한인동포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번영을 기원 합니다. 아울러 제 42대 매사추세츠 한인회 회장 장 영수 이하 임원들 인사 드립니다

매사추세츠 한인 회칙 제 4장 12 조에 의해, 2023년 총회를 소집 하며, 일정과 주요 안건을 공지 합니다

주요 안건

일정: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보스톤 성 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 2023년 한인 회장, 이사장, 임원진 인사
- 2022년 한인회 재무 감사보고
- 2022년 한인회 사업보고
- 2023년 한인회 예정 사업보고
- 기타 안건

2023년 제 42대 한인회는 더욱더 화합하고 2세, 3세가 참여할수 있는 장을 열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꼭 참석 하시어 한인회가 성장할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주시요

총회 당일 회원 가입이 가능 합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임원진 일동

협찬 **보스톤 코리아**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REFRIGERATOR MANUFACTURER
Turbo air

World Headquarters
Long Beach, California

터보에어 서비스 테크니션 직원 모집

세계적 상업용 냉장고 제조사로서 성장한 터보에어 그룹은 미국 시장 2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위 달성을 목전에 두고,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정과 성실을 겸비한 **서비스 테크니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 분야의 관심과 재능 있는 분”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 무경험자도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사내 기술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합니다.

기술을 습득하시면 어떤 불황에도 걱정없이 안정적인 미국 생활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 근무지역: 미주 전 지역 Orlando FL / San Francisco CA / Greensboro NC / Mobile AL / Boston MA
- 혜택 의료보험 (Medical, Dental, Vision), 유급휴가, 통신비 지원, 이사 비용 지원, Cash matching program 등
- 연락처 Email. kay@turboairinc.com Tel. 305-397-0793 (Text only. 562-922-4141)